

5 단계

태도의 변화

A RESOURCE OF ELIM CHRISTIAN SERVICES
TRANSLATION BY JONATHAN KIM

STAGE 2: 동정

나는 장애우들을 보면 불쌍하게 느낀다. 정말 어렵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 나의 아이들이 장애우가 아니라서 너무 감사하다. 약함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불편함 때문에 분명히 나같이 그들에게 의미를 줄 수 있고 도움이 될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정말 그들이 삶에서 어떤 목적이나 의미를 볼 수 없다.

STAGE 1: 무지

약함과 장애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거나 그것들을 고칠 수 없다는 사인이다. 사실, 그들은 죄 또는 믿음의 부족의 결과 일 수 있다. 하나님은 너무 깨진 사람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 나는 주변에 장애우를 모를 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다. 나는 장애우들을 알고 그들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

STAGE 3: 돌봄

나와 동일하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 한가지 이유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존귀한 가치가 있다. 나는 누군가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시간을 드리기를 바란다. 그러면 나는 그런 노력에 정말 행복하게 지원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우리는 특별한 교회 교육 클래스를 시작하거나 부모를 위해 관리 위탁 간호를 시작해야 한다.

STAGE 4: 우정

나는 장애가 있는 친구와 함께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왔다.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내게도 존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을 알게 된 것이 내 삶에 더 유익임을 안다. 또 내가 그녀를 많이 도울 수 있는 만큼 그녀가 나를 축복한다는 것도 안다. 사실, 나는 지금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 하나님은 장애우를 포함한 많은 다른 사람들을 교회와 지역 사회에 보내주신다. 이들과 함께 우리는 서로의 우정이 자라는 혜택을 함께 누리고 있다.

STAGE 5: 함께 수고함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데 우리 각자를 부르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장애를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들도 동일한 목적으로 부르셨을 것이다. 나는 사역이 단지 장애우들에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 곁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장애가 있건 없건 우리는 함께 모든 선한 일을 통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수고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줄 수 있고 또한 받을 수도 있다.

세움의 인식

접근방법 제공

통합

참여



SCAN THIS CODE OR GO TO
WWW.THE5STAGES.COM FOR MORE
INFORMATION AND RESOURCES.



"5 STAGES: THE JOURNEY OF DISABILITY ATTITUDES" IS COPYRIGHT
© 2014, ELIM CHRISTIAN SERVICES AND DAN VANDER PLAATS
WITH THANKS TO DISABILITY CONCERNS CRC,
DISABILITY CONCERNS RCA, JONI AND FRIENDS, AND MANY OTHERS